



지난해 5월 19일 비엔날레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구강보건주간 기념 제5회 백일장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작품을 제출하고 있다. (광주시치과의사회 제공)

광주시치과의사회 내달 5일 구강보건 사생대회·백일장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웅)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탁)이 공동주최한 '어린이날 기념 구강보건 사생대회 및 백일장'이 다음달 5일 비엔날레 전시관 옆 천인천탑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초·중학생이 참여하게 되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 ▲구강병의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 ▲치아건강식품을 섭취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체험담 및 생활수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배웅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선진국은 충치가 매년 감소해 국민의 치아수명이 현저히 연장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강질환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광주시민들에게 치아수명의 연장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다음달 22일 광주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gjda.or.kr)를 통해 공개되며 입상작은 오는 5월30일~6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내 어린이갤러리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시상식은 차이의 날인 오는 6월9일 오전 10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광주시기자 kps@kwangju.co.kr

故 박경리 선생 추모집·연구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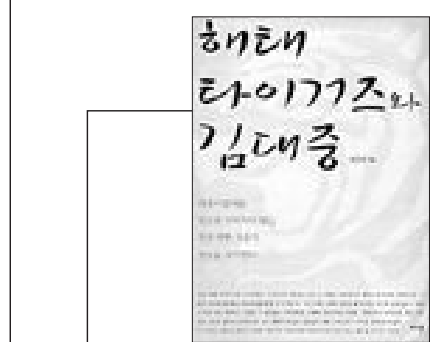


'토지'의 작가 고(故)박경리 선생의 1주기(내달 5일)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지속된 뜨거운 추모 열기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추모집과 연구서가 출간된다. 토지문화재단이 엮은 '보날은 연두에 불들어' (마로니에북스 펴냄)에는 지난해 영결식과 추모식에서 각계 인사들이 읽었던 추모사와 조시 등을 비롯해 잡지와 신문에 실렸던 추모글들이 수록됐다. 또 추모집에는 선생이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20여 점을 실었다. '토지'를 중심으로 고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한 연구서도 출간된다. 문학평론가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경리와 토지' (강 펴냄)에서 '김약국의 발발', '불신시대' 등 고인의 다른 작품과 더불어 대하소설 '토지'를 집중 조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방림동 사랑나눔회 경로 위안잔치



광주시 방림동 사랑나눔회(회장 이의민)와 방림교회·고백교회 등은 28일 오전 방림교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태타이거즈와 김대중'의 저자 충북 음성 출신 김은식씨

“오월 광주에 타이거즈는 희망이었다”

인터넷 신문에 야구에 대한 글을 써온 김은식(37) 씨가 최강이었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의 영웅 해태타이거즈를 추억하며 '해태타이거즈와 김대중'(이상 펴냄)을 냈다. 책 제목만 보면 그가 끝수 해태 팬이거나 전라도 사람일 거라 추측하지만 정작 김 씨는 충북 음성이고 고등학교 대부분 인천에서 생활해 온 야구광일 뿐이다. 김 씨는 "모든 면에서 해태타이거즈와는 멀찍이 떨어진 궤적을 밟아왔던 전설의 골짜기 삼미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이었고 지금도 해태의 진정한 라이벌은 삼미였다는 약다구니로 듣는 이들을 어이없게 만들며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광주대첩'(1983년 6월 7, 8, 9일 해태와 삼미의 3연전. 이 경기에서 삼미가 3연패 해 태 딱 한 번의 우승기회를 날려버렸다)에 관한 이야기로 술자리 분위기를 깨곤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회상하는 해태타이거즈의 모습은 이렇다 "5월 광주의 상흔을 안고 살던 호남 사람들

에게 해태 타이거즈는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무등경기장은 수천 명이 모여 한복소리로 외치고 흥분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청송맞은 곡조의 응원가인 '목포의 눈물'에 온갖 '거시기한 감정들'을 담아냈다. 김 씨는 "야구라는 것이 단순히 '야구'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역사와 맞닿아 있는 전선(戰線)"이라며 "신자유주의 파고에 몰락한 해태와 쌍방울에 대한 기억과 제2의 IMF라는 오늘의 상황이 오버랩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분발하라는 '희망'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강이면서도 약자들의 팀이었던' 역사적 팀 해태타이거즈를 핵심 키워드로, 또 해태와 함께 광주의 눈물을 상징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부수적 키워드로 민주화와 군부 독재, 경제 선진화와 외환위기는 모순된 시공간에 존재했던 80~90년대 한국사회를 차근차근 짚고 넘어간다. 그는 또 "인동초"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해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굴비골 공무원들 백두대간 중주 체험기 썼다



영광군청 산악회 '웰컴 투 백두대간' 펴내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수년간 백두대간을 걸으며 겪었던 일화 등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영광군청 산악회는 주5일제 근무가 도입돼 백두대간을 따라 걸으면서 '굴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영광군을 산악인들 사이에 널리 알리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영광 불갑산과 광주 무등산 등에서 치른 '자체 평가전'을 거쳐 정동성(58) 환경녹지과장, 김병중(54) 관광개발계장, 서원주(54) 기반조성계장, 한상훈(50) 민원계장 등 4명이 정에 땀뻑 뺐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배낭을 짰다. 이렇게 해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설악산 진부령까지 650km 안팎의 남한 지역 백두대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중주했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굴비골 영광'이라고 써 넣은 리

본을 나무에 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중주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광과 산행 과정의 일화 등을 묶어 28일 '웰컴 투 백두대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광주 출신 김경주 시인 박지선 연예인으로 처음 '시작문학상' 수상



광주 출신으로 활발한 시작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주(33·사진) 시인이 출판사 천년 의시자와 계간 문예지 '시작(詩作)'이 주관하는 제3회 '시작문학상'(상금 1천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기담'(문학과지성사 펴냄). 심사위원들은 "특유의 감각적 인식과 화술을 통해 우리 시단에 새로운 '시작 생산의 장'과 '시작 감응의 장'의 활로를 열어젖히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지선 연예인으로 처음 퀴즈쇼서 5천만원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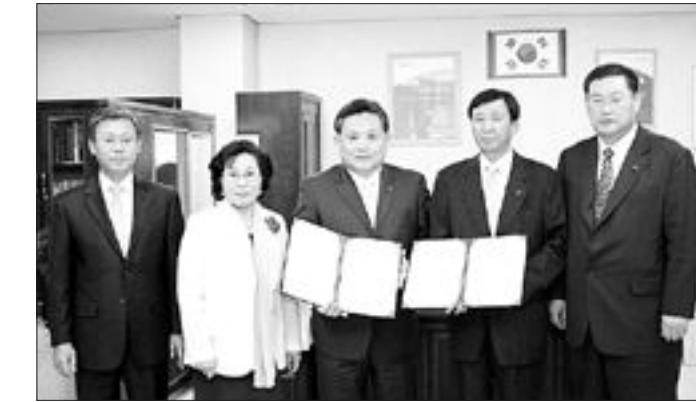
개그우먼 박지선이 KBS 2TV 퀴즈쇼 '1대 100'에서 연예인 최초로 최고 상금 5천만 원을 획득했다고 제작진이 27일 밝혔다. 박지선의 우승기는 28일 오후 8시 55분 '1대 100'의 100회 특집에서 방송된다. /연합뉴스

‘엄마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개최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센터장 이영숙 전남대 간호대 교수)는 최근 첨단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에너지후보화센터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를 열었다.

희귀난치병 학생들기 모금 협약식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에서는 2009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장 이상태·사진 중앙)과 희귀난치병학생들기 모금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광양제철소 자재공급사 대상 금연교육



광양제철소가 27일 혁신지원센터에서 광양지역 5개 자재공급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저탄소 녹색경영 마인드 고취를 위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 ▲성금대·정충의씨 차남 영식군 조만형·김복례씨 장녀 수정양 = 5월2일(토) 오후 1시40분 메리어드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 ▲노순임씨 장남 김진호군 정병천(대동고 행정실장)·강연자씨 차녀 은선양 = 5월2일(토) 오전 11시 30분 메리어드웨딩홀 2층(컨벤션홀)
 - ▲오동수·김춘희씨 차남 태근군 박선우(순창식품)·이영례씨 장녀 신애양 = 5월3일(일) 오후 1시 금호생명 30층 웨딩의 전당(아도니스홀)
 - ▲안병용(순천시청 사무관)·조형숙씨 장남 창섭군 임해택(초대화랑 대표)·이춘희씨 장녀 정원양 = 5월3일(일) 낮 12시40분 동명동 오페라 하우스 1층(오페라 특실)
- 동창·동문회**
 - ▲광주사대부중 제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5월 정기모임 = 29일(수) 오전 11시 화순군 수만리 너와나의 목장. 061-373-2202.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 30일(목) 오전 9시 (구)보훈청 대강당.
 -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 = 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 알림**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일시보호소 무료 상담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 = 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 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 ▲산수도서관 서예교실 무료수강생 모집 = 제1기 4개월 과정 서예교실 무료강습, 5월7일(목) 개강. 062-232-6694.
 - ▲2009년 제1기 요트교실 = 5월 1~31일 매주 토·일, 무안군 환경면 광주전남요트학교 교육장. 062-514-7955.
 -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 = 광

- 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신청. 062-384-5544.
- ▲놀이매 '신명' 단원 모집 = 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 =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 = 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모집 =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습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 ▲사람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모집 = 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 = 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 부음**
 - ▲정순주씨 별세 기민수·세환·동환·경자·수연·경미씨 모친상 = 발인 30일(목)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 ▲서삼석씨 별세 갑원·경원·해경씨 부친상 = 발인 29일(수)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 ▲고효숙씨 별세 강현욱(수원역)·해원(동부소방서)·지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선이(수원역)씨 모친상 = 발인 29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안선순씨 별세 박춘규·봉규·호규·춘실·형순·종례·경순·오복·양순씨 모친상 = 발인 29일(수) 화동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 ▲김연성씨 별세 두산·대산씨 부친상 = 발인 29일(수) 화동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 ▲김규현씨 별세 재준·춘자·금자·옥자씨 부친상 = 발인 29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오세덕씨 별세 석·인식·해경·은경씨 부친상 = 발인 29일(수) 그린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 ▲이주호씨 별세 도일·도익·정

대한민국 최초 선진국형 정화시스템 프리드

1688-3740